

기다리던 눈이 오지 않았다

눈이 온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듣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라고 해도 별 것은 없었다. 자동차에 기름을 충분히 넣고 물과 먹을 것을 조금 더 사다가 놓는 것뿐이다. 하지만 마음은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던 눈은 오지 않았다. 얼마나 허무 하던지 서북미에 살면서 동부와 같은 눈을 기다린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전부 좋아하는 나에게 아쉬운 일이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른 곳 보다 노숙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눈이 오지 않았기 망정이지 만일 눈이 많이 왔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어려울까 생각을 하며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늘 준비하며 사는 것에는 손해가 없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다. 날씨의 변화를 준비하며 사는 내가 과연 예배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매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다.

목회를 하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던 마치 말씀과 기도를 일에 맞추어 사는 것 같이 살던 지난 수 십 년의 삶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시간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내 개인 신앙생활의 적응이 쉽지 않다. 그만큼 내가 그 시간대에 예배를 위하여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역의 방향과 나 개인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목회와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다른 할 일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스스로 단단히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 주일 준비에 끌려 다니는 목사는 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는 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목회가 우선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우선인가?를 돌아보면 나의 개인의 건강한 믿음생활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거기에서 고백과 말씀의 깊이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큰 소리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본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고 말씀하신다. 노아와 같이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나 스스로를 위한 믿음의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한다. 그만큼 많이 부족하고 앞서서 인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베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전하기 위해서는 눈이 오든 오지 않든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이다.